

## 박용철의 블레이크 시 번역 고찰\*

김 효 중

(대구가톨릭대)

### 1. 서론

박용철(1904-1938)은 1930년대 한국번역문학사의 한 획을 긋는 번역가이자 시인이다. 그는 시와 수필, 평론, 번역, 연극 등 전 분야에 걸쳐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으며, 당대의 주목할 만한 문예지 『시문학』, 『문예월간』, 『문학』, 『극예술』, 『정지용시집』, 『김영랑시집』을 기획하고 발간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우리 시의 수준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sup>1)</sup>

그의 다양한 문학활동 가운데 해외시 번역은 특히 두각을 나타냈는데, 주로 영미시와 독일시를 번역작품<sup>2)</sup>으로 삼았으며 그 선택 범위도 방대하고 다양하

\* 이 논문은 대구가톨릭대학교 일반교비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1) 이것은 박용철이 주재하여 발간한 『시문학』이 현대시의 의장을 갖추고 현대문학의 양대의 하나인 이미지즘-모더니즘의 측면을 드러낸 것이어서 『시문학』을 현대시의 기점으로 삼는 견해(김용직 71)가 지배적인 것을 보더라도 박용철의 공과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다. 이러한 번역활동은 자신의 창작활동은 물론 당대 문단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우리 문학을 새롭게 발전시키는 데 매우 큰 몫을 함과 동시에 한국번역문학사적 위상을 확고히 하였다. 따라서 그의 번역성과를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일<sup>4)</sup>은 전통의 바탕 위에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지향하는 이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일이다.

박용철은 블레이크의 「서시」, 「봄」, 「애기 기쁨」<sup>5)</sup>을 동시(童詩)로 분류하여 번역, 수록하였다.

## 2. 블레이크 시의 이입 양상

블레이크 시가 우리 문단에 최초로 번역, 소개된 것은 변영만이 『동명』

- 2) 그의 번역시를 살펴보면, 괴테시 13편, 실레르시 1편, 하이네시 66편, 릴케시 7편, 예이츠, 테니슨, 부라우닝, 코울리지 등을 포함하는 영국시 64편, 무어, 스티븐슨을 포함하는 애란시 11편, 디킨슨, 로웰을 포함하는 미국시 20편, 프랑스, 일본, 인도, 중국을 포함하는 기타 시편 48편, 아동을 위한 번역시 78편이다. (박현숙 3-11)
- 3) 이 부분에 관한 것은 김효중(1987, 133-147)을 참조할 것.
- 4) 이 글은 제목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일종의 번역비평에 속하는 글이므로 박용철의 번역에 초점을 맞추어 논지를 집약하고 번역이 그의 창작시에 미친 영향관계는 논외로 한다. 그의 번역이 창작시에 미친 영향관계에 관한 것은 김효중(1987, 88-132)을 참조할 것.
- 5) 이 시편들이 수록된 『박용철전집』제1권(2004)은 박용철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유족과 문인이 중심이 되어 『박용철전집』제1권(시문학사 1939)을 복간한 것으로서 박용철의 「창작시편」, 「번역시편」, 「색동저고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색동저고리」는 특히 아동들을 위하여 해외시를 번역해 놓은 것으로서 본고의 연구대상인 블레이크 시도 이 안에 수록되어 있다. 「색동저고리」첫머리에 “아침까지 지지권다/동저고리 끄내입자//색동저고릿바람으로/아장아장/무지개다리를 넘어가자/엄마의 품을 나서 먼나라를 구경가자”라는 자신의 창작시를 보면 그의 해외시 번역이 어린이 독자들을 위한 의도에서 기획한 것임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으며 당대의 사회적 분위기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일제치하에서 허덕이던 당시 우리 민족의 열망은 상실된 조국을 되찾아 발전시키는 일이었고 이것을 담당할 사람은 장차 자라서 나라의 기둥이 될 어린이들이라는 인식이 컸기 때문이었다. 최남선과 이광수가 중심이 되어 『소년』지를 발간한 것도 그러한 의도에서였다.

(1923, 2:12)에 「진흙과 고드래수돌, 「병든 장미, 「파리」 등 세 편을 “윌리엄 블레이크의 단시 3편”이란 표제 아래 번역, 소개하면서부터이다.(김병철 418) 같은 해 안서(岸曙)는 『신생명』 창간호(1923.7)에 「해바라기, 『신생명』 2호(1923.8)에 「런돈, 「피파의 노래, 「꽃, 「봄, 「人生」 등을 번역, 소개하였다. 그 뒤 『연회』 6호(1926.5)에 역자 미상의 「무제」가 번역, 소개되었고 김한용은 『자력』 4호(1928.8)에 「봄이여, 「아, 해바라기여, 「흙덩이와 작은 돌」을 번역, 소개하였다.

1930년대에 이르러 이하운은 『신생』(1930.2)에 「사랑의 비밀」(원제는 “Never Seek to Tell Thy Love”임), 「야화의 노래, 「얕는 장미, 「어린애 기쁨, 「얕은 아이」 등을 번역했고, 정지용이 『시문학』 2호(1930.5)에 「봄에게, 「초밤별에게」를 번역, 소개하고 있다. 이어 이하운이 『신생』 3호(1930.6)에 「찾은 아이」를 번역하였고, 김광섭은 「가을노래」를 『동아일보』(1934.9.27)에 번역, 소개하였다.

1920년대 영시가 84편이 번역된 데 비해, 1930년대는 239편이 번역되어 이 시기는 이른바 영시 번역의 르네상스를 이루게 된다. 이렇게 영시 번역의 황금기를 이루게 된 요인을, 김병철은 해외문학파를 위시하여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번역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신문사, 잡지사가 일정한 의식 아래 특집호를 꾸렸다는 점에 두고 있다(김병철 711). 즉 『동아일보』는 “현대영시선택”이라는 기획(1930.2.9-3.30) 아래 변영로로 하여금 10수의 영시를 번역하게 하는 한편, 여기에 역재된 시인들은 20세기의 대표적 시인으로서 시사적 입장을 고려하여 선정한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 시기에는 『동아일보』의 이와 같은 기획에 자극을 받아 다른 잡지들도 이에 호응하여 이른바 영시 번역의 호황기를 이뤘다.

번역문학은 1935년부터 쇠퇴하기 시작하여 일제말기인 1940년대에 이르면 서구문학의 번역 소개는 매우 부진한 상태가 되어 블레이크 시는 「봄」한 편만 유일하게 번역, 소개되었을 뿐이다. 8·15해방과 더불어 서구문화 유입의 길이 열려 번역문학이 다시 활기를 찾게 되어 역자진의 세대 교체가 이뤄져 전공자 보다는 저널리스트의 색채를 띤다. 그러나 블레이크의 시는 박학수가 「봄」을 『교육』(1:1, 1948.2)에 번역, 소개했을 뿐이다.

외국유학생이 구미 각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1970년대, 1980년대에

이르러 우리의 번역문학은 번역의 느낌이 들지 않을 만큼 높은 수준에 올랐다. 블레이크의 *Songs of Innocence*와 *Songs of Experience*를 우리말로 처음으로 완역한 김영무(1987)의 역시집『블레이크』는 그간의 성과로 평가된다.

### 3. 블레이크의 시 세계

윌리엄 블레이크(William Blake, 1757-1827)는 18세기 말엽을 살았던 영문학사상 가장 독창적인 시인의 한 사람이다. 그는 시인, 화가, 조각가로서 뛰어난 상상력을 발휘하여 감정을 직접적이고 박력있게 표현함으로써 맑고 투명하면서도 힘이 넘치는 서정시의 진범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회귀하게 복잡하고 독창적인 신화체계를 통해 진실로 해방된 인간의 모습과 인간이 이루는 행복한 사회의 도래를 선언한 예언시편들을 써내기도 했다.

*Songs of Innocence*(1789)와 *Songs of Experience*(1794)는 그의 가장 널리 알려진 시집인데, 작품 속에 드러난 그의 뛰어난 통찰력 즉 산업사회의 갖가지 병폐와 모순, 국가들 사이의 파괴적인 세력다툼 현상들을 날카롭게 꿰뚫어 본 블레이크의 진면목이 당대의 사람들에게 이해되기는 쉽지 않았다. 즉 비범한 통찰력이 없이는 그의 작품 속에 담긴 진리를 터득하기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블레이크의 세계관과 삶의 기본구조에 대한 그의 생각은 *Marriage of Heaven and Hell*(1790)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즉 모든 발전은 적대적이고 상호 배타적인 갈등과 대립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한 것이며, 이것은 인간의 존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그 요점이다.

블레이크의 *Songs of Innocence*, *Songs of Experience*, *Milton*, *Jerusalem* 등으로 대표되는 후기의 난해한 예언시들에서 구현해 보려는 세계는 순수의 세계, 강제로 닫혀진 윤리의 세계, 역동적 윤리의 세계이다.

블레이크의 빛나는 시적 성취는 *Songs of Experience*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나는데, 이 시집은 예리한 현실감과 날카로운 비판정신의 소유자인 리얼리스트로서의 그를 접할 수 있는 시집이기도 하다. 이 시집에서 특히 그는 닫혀진 정적 윤리의 폐쇄성과 폭발성을 날카롭게 드러내 보여준다.

작품 「런던」에서 그는 악의 근원을 정치, 종교, 사회, 문화, 경제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닫힌 율법과 억압적 구조 및 제도에서 발견한다. 「아! 해바라기」에서 닫힌 윤리, 다시 말해서 삶의 개방적인 전체 현실을 어떤 특정한 부분의 틀 속에 몰아넣으려는 윤리의 불모성을 놀라운 언어경제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김영무 20-41 참조)

#### 4. 박용철의 블레이크 시 번역

##### 1) 번역 대상(對象) 작품 선정

박용철이 영미 시인들 가운데 특히 왜 블레이크의 시를 뽑아 번역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대체로 번역하고자 하는 작품 선정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것이며, 번역자의 기호 및 취향에 관계된다. 그러나 번역자가 작품을 선정할 때 간과해서 안 될 일은 번역작품이 끼칠 문학사적 의의, 사회적 분위기, 독자의 기호 등이다.

박용철이 블레이크 시를 번역하고자 한 것은 서론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당대의 시대적 요청에 적절히 부응하고자 한 의도에서였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이 무렵 블레이크 시를 선호하는 우리 문단의 분위기를 간과해선 안 되었기 때문이다.<sup>6)</sup> 이와 동시에 정지용이 블레이크의 초기시집에 수록된 작품을 번역한 사실<sup>7)</sup>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박용철은 정지용, 김영랑과 함께 시문학파로서 당시의 우리문학 발전에 뜻을 같이하고 있었으며 그 일환으로 번역을 중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sup>8)</sup>

6) 1920년대 이입양상을 보면, 블레이크 시가 2위로 애독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예이츠가 17편, 윌리엄 블레이크가 13편, 테니슨이 8편, 시몬즈가 10편, 카알라일이 2편, 고울즈워디가 3편 총 84편의 시가 번역되었다. (김병철 421)

7) 그의 블레이크 시 번역작품 「봄에게」, 「초밤별에게」, 「소곡1」, 「소곡2」는 첫시집 *The Poetical Sketches*(1783)에 수록된 것으로서 블레이크가 10대, 20대에 쓴 작품들이고 「봄」은 *Song of Innocence*(1789)에 수록된 것이며 이 시집은 시와 그림을 곁들인 독특한 판화책이다.

8) 일본 동지사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면서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와 기타하라 히쿠슈(北原白秋 1885-1942)의 시를 읽고 배우면서 시에 대한 시야를 보다 넓혀 갔던 정지용의 졸업논문은 “Imagination in the Poetry of William Blake”이다. 이로 미루어 이

블레이크의 시집 *Songs of Innocence*에 실린 작품의 상당수는 직·간접적으로 ‘어린 양에 관한 노래’임을 암시할 뿐만 아니라 시인 혹은 시 속의 화자의 역할, 독자와 시인, 시 속에 등장하는 삼라만상과의 관계를 암시하고 있다. 이 시집은 *Songs of Experience*와 함께 영문학은 물론 서양의 시문학, 중남미의 문학적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으며, 시편들이 외적으로는 단순하고 거칠 것이 없는 순수서정시인 듯이 보이나, 다중상징성을 띠고 있어 해석이 다양하게 열려있는 까닭에 번역하는 데에 난해한 면이 있다.

## 2) 박용철의 번역태도<sup>9)</sup>

박용철은 8년 동안의 짧은 문학활동 기간에 전문적인 번역가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벌였다. 그 당시 시대적 풍조가 외국문학을 번역, 소개하여 우리 문학을 발전적으로 건설하려는 경향이 짙었기 때문에 그가 번역에 손을 댄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대체로 번역자가 작가 및 작품에 대한 해설을 덧붙이거나 혹은 어떤 방법으로 번역했는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박용철은 이에 대한 일체의 자료를 남기고 있지 않다.<sup>10)</sup> 그러므로, 그가 어떠한 번역태도를 가졌었던가는 번역시를 원시와 대조, 분석하여 확인하는 방법 외의 다른 방법은 없다. 분명한 것은 그가 해외문학과의 일원으로서 이 유포의 기본 태도<sup>11)</sup> 즉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고 번역을 비롯한 제반 문학 활동은 우리 문학에 기여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입장을 고수(固守)하고 있다는 점이다.

---

무렵 그가 블레이크 시에 얼마나 심취해 있었는가가 짐작이 된다. (김학동 125-128) 그가 졸업논문을 쓰려면 이 시인에 대한 전반적인 섭렵이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의 번역은 5편에 불과하여 일부에 국한된 것이지만, 그의 취향에 맞았던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9)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효중(1987, 51-55)을 참고할 것.

10) 박용철과 함께 당대 본격적인 번역활동을 펼쳤던 김억, 양주동, 이하운, 김진섭 등 여타 번역자의 경우에도 저간의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11) 이것은 해외문학회가 발행한『해외문학』(1927)의 창간호 서문에 명시되어 있다. 특히 이 시기의 번역 경향에 대해서는 필자의 연구(김효중 1990 174-230)에서 상론하였으므로 이를 참조할 것.

1930년대는 시인들의 언어적 자각이 뚜렷이 드러난 시기로서 이러한 경향을 주도한 것은 시문학과였다. 시문학과와 일원인 정지용이 “시의 신비를 언어의 신비”로 인식하고 “시의 본질이란 언어의 가장 자유스럽고 구체적인 상태에서 시작, 발전된 것이며, 새로운 시는 이러한 언어에 대한 자각으로 문자와 언어에 혈육적 애(愛)를 느끼지 않고서 시를 사랑할 수 없다”(정지용 208)고 언급한 내용을 보면 당시 언어에 대한 자각이 투철하였음을 알 수 있다.

### 3) 번역시와 원시의 비교

이 항목에서는 번역시를 원시와 비교하여 번역에서 드러난 특징적인 것만을 기술하되 현대번역본과도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분석대상은 「서시(Introduction)」, 「봄(Spring)」, 「애기 기쁨(Infant Joy)」 등 세 수이다.

#### 1) Introduction

Piping down the valleys wild  
Piping songs of pleasant glee  
On a cloud I saw a child  
And he laughing said to me.

Pipe a song about a lamb;  
So I piped with merry cheer,  
Piper pipe that song again—  
So I piped, he wept to hear.

Drop thy pipe thy happy pipe  
Sing thy songs of happy cheer,  
So I sing the same again  
While he wept with joy to hear

Piper sit thee down and write  
In a book that all may read—  
So he vanish'd from my sight

And I pluck'd a hollow reed.

And I made a rural pen,  
And I stain'd the water clear,  
And I wrote my happy songs  
Every child may joy to hear(김영무 46)

「序詩」

피리 불며 거친 풀로  
기쁜 노래를 피리불며 걸어갈제  
구름우에 한분 어린아기  
웃으며 내게 하는 말씀

『羊의 노래를 한 곡조 불어 다오』  
그말 딸아 질겁게 한 곡조 불었더니  
『그 피리 다시 한번 불어 다오』  
내 피리소리 그는 듯고 울었더라.

『너의 피리 거기 놓고  
너의 기쁜 맘을 노래로 불러다오』  
그 말 딸아 나는 노래 불었더니  
그는 듯고 기쁨에 넘쳐 울었더라.

『피리 부는 사람이 거기 없어  
사람이 모도 잃게 그 노래 책에 써라』  
그 말하고 아기는 간 곳 없어  
나는 냇가에 갈대를 꺾었다네.

그 갈대로 손수 펜을 만들어  
맑은 물 거기 문혀  
내 기쁜 노래를 적어 놓았네  
아기마다 이를 듯고 좋아하게.(박현숙 642)<sup>12)</sup>

12) 이 시의 현대번역본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외딴 골짜기로 피리 불며 내려가다/즐겁고 유쾌한 노래 피리로 불며 가다/나는 보았



이 시는 『순수의 노래』의 서시로서 일종의 소박한 전원시인데, 아름답고 환상적인 동시의 분위기를 풍긴다. 시어는 소박하면서도 맑고 투명하다. 순수의 세계에서는 만물이 갈등이 없이 상호공존하며 지족적이다. 그리고 이 작품은 위의 시집의 다수의 작품들이 어린양에 관한 시임을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암시한다.

위의 번역시는 원시 4행 5연과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고 원시의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박용철이 1연의 “wild”<sup>13)</sup>를 “거친”으로 번역한 것은 “외판”으로 번역한 현대번역본보다는 이 시의 문맥에 어울리게 번역한 것으로 평가된다.

2연 “Pipe a song about a lamb;”, “Piper pipe that song again—”를 각각 “『양의 노래를 한 곡조 불러 나오』”, “『그 피리 다시 한번 불러 나오』”로 번역하였는데, 여기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특징은 대화체 형식의 문장에 원문에는 없는 부호 “『』”를 삽입했다는 점이며 3연과 4연에서도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것은 대화체를 번역에 활용한 방법으로서 이전에는 볼 수 없던 번역방법이다.<sup>14)</sup>

3행의 “child”를 현대번역본과 달리 “한분 어린이”로 존칭어법을 써서 번역한 것도 특이하다. 그가 우리말 특징의 하나인 존칭어법을 활용한 것은 국가 사이의 문화적 차이와 우리말과 영어의 어법이 전혀 다름을 보여주는 예이다. 이것은 동시에 원시의 주제를 제대로 전달하고자 하는 번역자의 태도가 명확히

---

네 구름 위에 한 어린이/그 아이 웃으며 네기 말했네//어린 양에 관한 노래 피리로 불러 주세요/그래서 나는 신나게 피리불었네/피리 아저씨, 그 노래 다시 피리 불러 주세요/그래서 내 피리 부니 그 아이 듣고 울었네//그 피리, 기쁨의 그 피리 놓아두시고/기쁨 넘치는 노래들을 불러주세요/그래서 그 노래 내 다시 부르니/그 아이 행복해서 듣고 울었네//피리 아저씨, 앉아서 책에다 적어주세요/모든 사람 다 읽을 수 있게/그리고 그 아이 눈 앞에서 사라졌네/나는 속에 구멍 뚫린 갈대를 꺾어//전원의 붓 만들어/맑은 물에 물감 풀어/나의 기쁨의 노래를 적어 놓았네/어린이들 너나없이 들고 기뻐하라고// (김영무 44)

- 13) 이 말은 “야생의, 들에서 자란, 황량한,” (정운길 3243)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외판,” 의 의미와는 매우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 14) 이것은 그의 하이네시 번역에서도 발견되는 특징이다(김효중 1987 67). 그러나 현대번역본에서는 특별히 다른 표시는 하지 않았다.

드러나는 증거이기도 하다.

나이다(E. A. Nida 5)의 이론에 의하면, 메시지의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려면 언어의 형태는 변화될 수밖에 없다. 그가 필요한 경우에 문장부호를 첨가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Songs of Innocence*에 수록된 시편들이 언뜻 보기에는 단순하고 거칠 것이 없는, 투명하고 아름답지만 한 서정시에 불과한 것 같지만 고도의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번역자의 예리한 통찰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 시는 양에 관한 작품인데, 시의 문맥에 따르면, 어린이가 구름 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양은 곧 아기 예수<sup>15)</sup>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존칭어법을 써야 마땅하다. 이것은 1연 4행의 “And he laughing said to me.”를 “웃으며 내게 하는 말씀”으로 번역한 것에서 확인될 뿐 아니라 2연에서 4연에 이르기까지 “『양의 노래를 한 곡조 불러 나오』”, “『그 피리 다시 한번 불러 나오』”, “『너의 피리 거기 놓고 너의 기쁜 맘을 노래로 불러다오』”, “『피리 부는 사람아 거기 앉아 사람이 모도 읽게 그 노래 책에 써라』”로 번역한 점에서도 재확인된다. 이것이 현대번역본에서는 각각 “어린양에 관한 노래를 불러 주세요. 피리 아저씨, 그 노래 다시 피리 불러주세요. 기쁨 넘치는 그 노래들을 불러주세요. 피리 아저씨, 앉아서 책에다 적어주세요.”라고 번역되어 있다.

## 2) Spring

Sound the Flute!  
Now it's mute.  
Birds delight  
Day and Night  
Nightingale  
In the dale  
Lark in Sky  
Merrily  
Merrily Merrily to welcome in the Year



15) 천주교 미사에서 “천주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여 양은 곧 예수를 의미한다.

Little Boy  
Full of joy.  
Little Girl  
Sweet and small,  
Cock does crow  
So do you.  
Merry voice  
Infant noise  
Merrily Merrily to welcome in the Year

Little Lamb  
Here I am,  
Come and lick  
My white neck.  
Let me pull  
Your soft Wool.  
Let me kiss  
Your soft face.  
Merrily Merrily we welcome in the Year(김영무 87)

「봄」

피리를 불어라  
그 소리 그쳤느냐?  
새들은 밤낮으로  
숲속에 노래하여  
저 건너 골짜기에는  
노래하는 밤피꼬리  
저기 하늘에는  
종달새의 무리  
질거이 질거이 새해를 마지한다.

기쁨에 넘치는  
조고만 사내아이,



에쁘고 팔팔한  
조고만 계집아이,  
장닭은 꼬꼬 운다  
너희도 그리 한다  
질거운 목소리  
어린애기 노는 소리  
질거이 질거이 새해를 마지한다.

조고만 羊아  
내 여기 왔다  
와서 활아라  
내 하얀 목달미  
잡어 당기자  
부드러운 네 터럭  
입을 맞추자  
부드러운 네 얼굴  
질거이 질거이 새해를 마지한다.(박현숙 644-646)<sup>16)</sup>

이 시는 봄을 맞이하여 온갖 사물이 환희작약(歡喜雀躍)하는 모습을 시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원사에서 취한 3연 9행의 형식을 번역에서 그대로 따르고 있다. 다만 1연 1행에서 느낌표가 빠져있고 원시의 2행 즉 평서문은 대답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절대적 의문문으로 번역되었다. 이 절대적 의문문은 의미를 강하게 부각시키는 데에 효과적일 수 있다.

시에 등장하는 사물을 보면, 새들, 밤피꼬리, 종달새, 사내아이, 계집아이, 수탉, 양 등이다. 5행 “nightingale”<sup>17)</sup>을 “밤피꼬리”로 번역하였는데, 이는 최적

16) 이 시의 현대번역본은 아래와 같다.

피리를 불어라!/소리 그쳤다/새들은 기뻐한다/밤낮으로/나이팅게일은/골짜기에서/종달새는 하늘에서/홍접게/홍접게, 홍접게 새해를 반긴다//기쁨 가득한/사내아이야/귀엽고 작은/계집아이야/수탉이 노래한다/너도 노래하라/흥겨운 목소리/갓난 아기 소리/홍접게, 홍접게 새해를 반긴다//귀여운 어린 양아 내가 여기 있으니/와서 활으려무나/내 흰 목을/너의 부드러운 털//잡아당기며/네 부드러운 얼굴에/입맞춰 보자/홍접게, 홍접게 우리는 새해를 반긴다. (김영무 85)

17) 이 새의 명칭은 “지빠귀류의 철새 혹은 유럽산의 나이팅게일”(Sisa Elite 1309)인데, 박용철이 이 시에서 “밤피꼬리”로 번역한 것은 적합하지 않다. 그런데, 이 낱말을

의 번역이라 할 수 없으며, “나이팅게일”로 번역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 새는 우리나라에 없는 생소한 새이기 때문이다.<sup>18)</sup>

2연 5행의 “Cock does crow”에 없는 “꼬꼬”라는 우리말 특유의 의성어를 번역자 임의로 추가한 것이 주목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경쾌한 리듬을 통한 청각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sup>19)</sup>

### 3) Infant Joy

I have no name  
I am but two days old,—  
What shall I call thee?  
I happy am  
Joy is my name,—  
Sweet joy befall thee!

Pretty joy!  
Sweet joy but two days old.  
Sweet joy I call thee:  
Thou dost smile.  
I sing the while  
Sweet, joy befall thee.(김영무 91)

「애기 기쁨」<sup>20)</sup>

현대번역본에서는 “나이팅게일”로 번역하였다. 한편, 그의 하이네시 번역(김효중 81)에서는 “나이팅겔”로 번역하면서 밑줄을 긋고 외래어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없는 새이므로 번역에서 일관성 있게 다루지 못한 것 같다.

- 18) 반월의 번역이론에 의하면, 번역될 나라의 생경한 개념을 번역하는 경우 다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설명적인 어구를 사용하는 방법, 둘째, 외국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 셋째, 역어에서 익숙한 단어로 대치하는 방법이다.(K. Barnwell 78-82 참조)
- 19) 역자 임의로 낱말 혹은 어구를 첨삭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견(異見)이 있을 수 있다. 즉 전통적인 번역에서는 이것이 허용될 수 없으며 독자에 초점을 맞추는 현대 문화번역이론에서는 가능한 범위 안에서 허용된다.
- 20) 이 시의 현대번역본을 참고로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나는 이름 없다  
 난지 겨우 이들』  
 무어라 널 부르랴?  
 『내 다만 질겨우니  
 기쁨이 내 이름이다.』  
 어여쁜 기쁨 네게 있어라!  
 아름다운 기쁨  
 어여쁜 기쁨 네게 있어라!  
 아름다운 기쁨  
 어여쁜 기쁨 난지 겨우 이들.  
 어여쁜 기쁨이라 널 부르마.  
 너는 우습 웃어라  
 나는 노래 부르마.  
 어여쁜 기쁨 네게 있어라!<sup>21)</sup>(박현숙 647-648)

이 시에서 시인은 어린이를 통한 순수세계<sup>22)</sup>를 표현하고 있다. 시의 문맥에 따르면, 태어난 지 이들밖에 안 된 아기는 순수하고 티 없이 맑고 이름이 없다. 아기에게는 오직 즐거움, 기쁨, 아름다움, 어여쁨, 웃음, 노래만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린이의 순진무구(純眞無垢)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어 보

나는 이름이 없어요태어난 지 이들 밖에 안 됐거든요/너를 무어라고 불러 줄까?/나는 행복해요/내 이름은 기쁨이에요./향긋한 기쁨 많이 받아라//어여쁜 기쁨!갓 이들 된 향긋한 기쁨/향긋한 기쁨이라 너를 부르마/너는 환히 웃는구나/나는 노래부르마/향긋한 기쁨 많이 받아라//((김영무 90)

- 21) 박용철은 이 번역시의 말미에 “쉬임없는 기쁨과 사랑의 동요집 『무심의 노래』를 지은 이분은 18세기의 영국 신비시인 윌럼·블레이크입니다. 그의 시는 그와 같은 시대 사람의 이해를 받지 못하고 죽은 뒤 백오십년이 지나서야 참 숭배를 받았습시다.”라고 설명을 덧붙이고 있어 독자들이 쉽게 작가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 22) 순수 세계를 지배하는 내부적인 기본적인 원리는 열려있는 동적인 윤리임에 틀림 없으나 그것이 집단의 것으로가 아니라 개인 세계의 윤리로 작용한다.(이에 관해서는 Robert Faricy 1967 참고)

그리고 블레이크의 시집 『순수의 노래』에 수록된 시편은 순수 의미의 대변하는 목동, 어린 양, 소년, 아이의 세계를 묘사하고 있는 바, 이는 『목동』, 『어린 양』, 『작은 흑인 소년』, 『꿀떡 소제하는 아이』, 『잃어버린 작은 소년』, 『다시 찾은 작은 소년』, 『자장가』, 『젖먹이의 노래』, 『갓난 기쁨』 등 제목을 통해서도 명백히 드러난다.

인다. 그러므로 블레이크가 의도하는 순수의 세계를 묘사하기 위하여 어린이를 소재로 택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시의 내용은 비교적 단순하여 번역상의 난점은 별로 없어 보인다. 번역자는 원시의 형태를 그대로 따르되 2연만은 6행을 8행으로 번역하였으며 2행과 5행 뒤에 쓰인 부호 “—”를 “『』”로 묶어 놓았다. “『』”는 대화 내용이므로 다른 서술 부분과 차별화하기 위하여 첨가한 부호이다.

앞의 「서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박용철은 대화 내용을 번역할 때 주로 이 부호를 활용하였는데,<sup>23)</sup> 이것은 오늘의 시점에서 보면, “친숙하게 하기”<sup>24)</sup> 방법에 속한다. 이러한 태도는 번역과정에서 박용철이 그만큼 독자를 의식하였다는 증거이다.

## 5. 결론

이 논문은 1930년대 번역가로서 역량을 발휘한 박용철의 블레이크 시 번역을 번역학의 관점에서 논의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씌어졌다. 본문에서 논의한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930년대 다양한 문학활동을 한 박용철은 특히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적극적인 번역활동을 전개했으며, 그의 번역방법과 번역태도는 자신이 소속한 해외문학과가 지향하는 바와 일치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해외문학과는 원문에 충실히 번역할 것과 해외시 번역은 우리 문학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데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한국번역문학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결코 경시할 수 없다.

23) 주석 15)를 참조할 것.

24) 번역에서 이 두 가지 방법은 오늘날 번역자가 번역독자 혹은 번역될 작품에 따라 항상 선택해야 하는 방법에 속하는데, 그것은 괴테가 빌란트(Ch. Wieland)의 서거(1813)에 즈음하여 그의 추도사에서 번역가로서 빌란트에 관하여 언급한 내용에서 비롯된다. 즉 번역에는 두 원칙이 있는데, 하나는, 작가가 우리들의 작가로 여겨지도록 그를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외국인에게로 다가가서 그의 상태, 어법, 특성을 발견하도록 하는 방법이다.(J. Albrecht, 73). 전자는 “친숙하게 하기(Einbürgerung)”이고 후자는 “낯설게 하기(Verfremdung)”이다.

그리고 어떤 한 작품을 번역할 때 그 나라의 문학사나 문화를 통찰하지 않고서는 정확한 번역은 어려우며, 번역할 작품 선정은 친구와 마찬가지로 자기가 잘 아는 작품일 때 번역하기 쉽고 또한 잘 할 수 있는 법이다. 어떤 문학작품을 번역할 것인가 하는 대상작품의 결정은 역시 개인적 선택이며 번역자의 세계관, 지적 수준 및 취향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박용철은 번역작품을 선정함에 있어서 당대 우리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시인을 선택한다는 의도에서 블레이크를 선택했으며 그가 블레이크의 시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번역을 읽는 독자층인 어린이를 의식하고 번역한 것도 주목된다. 어린이는 장차 커서 나라를 발전시켜 나갈 동량재들이므로 당시 선각자들에게는 이들을 건전하게 육성해야 한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었다.

박용철은 가능한 한 원작의 정신과 묘미를 살려 번역하였으며 그가 번역자이면서 시인이었기 때문에 단 하나의 어휘에도 세심한 배려를 했다. 그가 번역 과정에서 우리말 어법과 문화에 맞추어 존칭어법을 쓴 점, 우리말 고유의 의성어를 첨가하여 시의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살린 점, 문장부호를 첨가하여 대화체를 살린 점, 대화체를 통한 친숙하게 하기 방법의 활용 등은 가능한 한 적합한 번역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심사숙고하였음을 보여주는 예(例)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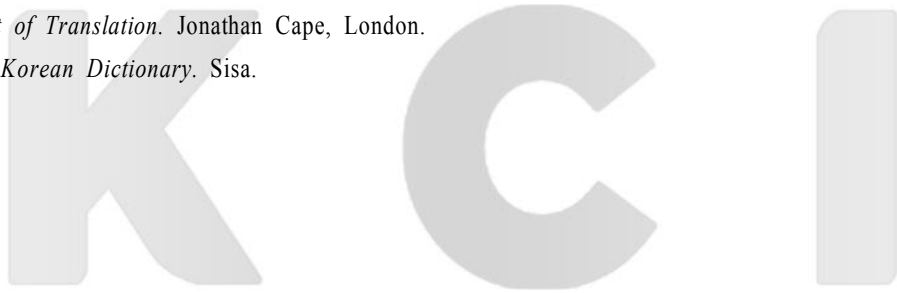
대체로 훌륭한 시인은 번역에서도 그 능력을 발휘하는 법이다. 박용철의 해외시 번역은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그 한계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질적, 양적인 면에서 1930년대 우리 문학을 풍부하게 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과 번역자로서 성실한 태도를 가지고 번역에 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를 후대에 귀감이 되는 번역가로서 평가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효중. 1987. 『박용철의 하이네시 번역과 수용에 관한 연구』. 정음사.  
———. 1990. 「한국의 문학번역이론」. 『비교문학』 15집. 한국비교문학회.  
———. 1998. 『번역학』. 대우학술총서 103. 민음사.  
김병철. 1975. 『한국 근대 번역문학사 연구』. 을유문화사.  
김영무. 1987. 『블레이크』. 혜원출판사.



- 김용직. 1977. 『한국근대문학의 사적 이해』. 삼영사.
- 김학동. 1989. 『정치용연구』. 민음사.
- 박현숙. 2004. 『박용철전집』 1권. 깊은샘.
- 정운길. 2002. 『영현대사전』. 민중서관.
- Albrecht, J. 1998. *Europäischer Strukturalismus*.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Darmstadt.
- Barnwell, K. 1980. *Introduction to Semantics and Translations*. Harsleys Green, England, 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
- Bentley J. G. E. 1995. *William Blake*. Routledge.
- Blake, W. 1966. *Blake William*. Prentice Hall.
- . 1979. *Blake Complete Writings*. Oxford UP.
- Farcy, Robert. 1967. *Teilhard de Chardin's Theology of the Christian in the World*. Sheed & Ward, New York.
- Gentzler, E. 1993. *Contemporary Translation Theories*. Routledge.
- Güttinger, F. 1963. *Zielsprache. Theorie und Technik des Übersetzens*. Manese Verlag, Zürich.
- Koller, W. 1979. *Einführung in die Übersetzungswissenschaft*. Quelle & Meyer, Heidelberg.
- Richey, W. 1996. *Blake's Altering Aesthetics*. U of Missouri.
- Savory, T. 1957. *The Art of Translation*. Jonathan Cape, London.
- Sisa Elite. 2000. *English-Korean Dictionary*. Sisa.



[Abstract]

**A Study on the Translation of William Blake's Poetry  
by Yong-Cheol Pak**

Kim, Hyo-Joong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Yong-Cheol Pak concentrated his translation efforts on foreign poems which had not only a great impact on his own writing but considerably influenced the Korean literary world. It was during the 1930's that Korean poetry assumed its modern shape and underwent a period of experimentation,

By objectively analyzing and examining Yong-Cheol Pak's translation of William Blake's poems, the target is to discuss the problem of translation. Pak made faithful translations of the original poems as a rule, and only in case of need he made free translations.

In the process of translating, Pak considered such elements as reappearance of rhyme, adequacy of meaning, taste of the reader, literary style, style of time, syntax etc., thus showing the features of a translator high abilities. Among his special qualities in translating, both his professional experience and the literary attainment required to introduce foreign poetry to his country can be named. While translating Blake's poems, Pak cautiously showed a way of selecting the individual word and, thus contribute to elaborating his mother tongue.

In conclusion, we can say that, while the tradition of modern poetry in Korea reached harmony through the influence of and amalgamation with Korean literature,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new literary order, Pak as a translator and as a poet made great contribution to the literary world both in quantity and in quality.

▶Key Words: W. Blake, translation, translation theory, Songs of Innocence, Songs of Experience, view of translation, familiarization

김효중

대구가톨릭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hjkim4@cu.ac.kr

관심분야: 비교문학(국문학) 및 번역학

논문투고일: 2006년 4월 22일

심사완료일: 2006년 5월 30일

게재확정일: 2006년 6월 10일

K C I